

박찬일의 밥 먹고 합시다



‘안심’이니 안심하세요

한때 한국의 돼지 유통을 담당하거나 후원하는 곳에서 하던 하소연이 있었다.

“안심 후지 좀 팔아 주소.”

둘 다 돼지고기 부위다. 한국은 돼지든 소든 부위별 유통과 가격이 잘 나오는 나라다. 돼지머리며 발, 내장까지 알뜰하게 먹고 팔리는 나라가 흔하지 않다.

삼겹살과 목살 두 부위가 압도적으로 비싸다. 구이 중심 문화 때문이다.

돼지는 구우려면 지방이 적당히 섞여야 좋다. 소고기와 달리 ‘웰던’으로 바삭 굽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구이용 스테이크감으로 애용되는 안심, 등심이 한국에선 그저그런 부위다.

핑크채널이다. 그들은 자기 몸 만들기에 관심이 많다. ‘헬창’(헬스 매니아)이니, 하는 조어를 즐긴다.

돼기슴살은 전통적인 근육질 도우미다. 그것만 먹자면 지겨웠을 거다. 이때 짠, 돼지고기도 있어! 하고 나온 게 안심이다.

앞에서 안심과 후지를 거론했다. 안심은 안심해도 되는데 후지는 여전히 후지(?)다. 후지는 정육업자가 일컫는 전문 용어. 뒷다리란 뜻이다.

돼지국밥은 보통 삼겹살, 앞다리와 어깨살 등을 써

왔다. 이제는 후지도 종종 볼 수 있다. 육절기와 브라인(소금물, 양념으로 간을 들이는 기술)을 써서 뒷다리를 좀 더 부드럽게 만들고 있다.

이런 현상이 반가운 건 이유가 있다. 특정 부위 수요를 맞추려고 사육량을 계속 늘릴 필요가 줄어든다. 그 부위(주로 삼겹살)를 수입하는 양도 적어질 수 있다.

<음식칼럼리스트>

의료칼럼

광주·전남 고위험 산모·신생아는 안전한가



김윤하 전남대병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장

사 인사를 전하려 했더니 보이지 않았다. 서울삼성병원에서 광주로 오는 길에 타고 있던 119구급대가 가드레일에 접촉 사고를 내서 타박상을 입어 쉬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지역에서 필수 의료 분야로 매우 중요한 모자보건을 담당하는 전남대병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가 직면하고 있는 실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해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보이는 국가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더욱이 만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율은 10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임신 중독증, 조산, 전치태반, 다태아 임신, 자궁 내 태아 발육 부전, 임신성 당뇨 등 고위험 산모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몇 년 전부터 이 센터의 운영에 또 하나의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바로 의료 인력 문제다. 산부인과, 모체태아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신생아 분과의 인력난은 매우 심각하다.

중 현상이 매우 심해 지방은 전멸에 가깝다. 모체태아의학 전문의(전임의) 지원이 없는 곳이 전국 병원의 63%에 해당한다.

전남대병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진료 현황을 살펴보자. 전남대병원 분만실은 총 19명의 산모가 입원할 수 있는데, 지난 한 달간 재원환자 상황을 보면 분만실 입원 환자는 평균 22.7명 정도다.

전남대병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진료 현황을 살펴보자. 전남대병원 분만실은 총 19명의 산모가 입원할 수 있는데, 지난 한 달간 재원환자 상황을 보면 분만실 입원 환자는 평균 22.7명 정도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항상 임시방편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그 사이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인력들은 지쳐가고, 현장을 떠나고 있다.

기고

아름다운 사랑, 행복한 삶



양관수 소설가

여성을 반인반신이라 여긴다. 그동안 반인반신 여성을 인간 남성이 잘못 대한 것이다.

“길가메시 여, (중략) 당신의 손을 잡은 아이들을 돌보고, 당신 부인을 데리고 가서 당신에게서 즐거움을 찾으려 해주세요. 이것이 인간이 즐길 운명인 거예요.”

이 말처럼 아이들과 아내를 잘 챙긴다면 그들은 전체 인구에서 얼마나 비중을 차지할까. 먼저 남녀로 구분하면 반반이다. 성인과 미성년으로 나뉘고 반반이다.

2021년은 건국 이래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다. 청년들이 결혼을 싫어하거나 결혼해도 출산을 꺼린 탓이다. 이러한 트렌드는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더 지향한다.

우리 사회는 빈부 차이가 심하다. 골이 깊다 보니 돌이킬 수 없는 양극화처럼 비친다.

우리 사회는 빈부 차이가 심하다. 골이 깊다 보니 돌이킬 수 없는 양극화처럼 비친다. 그 탓에 대다수의 소외당하는 젊은 남녀가 맘 놓고 사랑할 사회적 분위기가 아닌 것이다.

우리 사회는 빈부 차이가 심하다. 골이 깊다 보니 돌이킬 수 없는 양극화처럼 비친다. 그 탓에 대다수의 소외당하는 젊은 남녀가 맘 놓고 사랑할 사회적 분위기가 아닌 것이다.

인문학은 19세기 즈음 자립 잡고 20세기 들어 발달했다. 역사가 짧긴 하다. 21세기 우리에게 75%를 사랑하는 인문학적 분위기가 절실하다.

社說

우후죽순 부동산중개소 불법 행위 엄단해야

부동산 중개업소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서 과당 경쟁 속에 불법 행위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고금리로 전환하기 직전까지 지난 몇 년간 주택 경기 호조 속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이삼일에 한 곳 꼴로 생긴 탓이다.

하지만 시장 대비 과도한 중개업소 탓에 생존을 위한 과당 경쟁으로 인한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다. 단순 계산하면 업소 열 곳 중 두 곳에서 적법한 꼴인데 그만큼 불법 행위가 만연해 있다는 의미다.

이런데도 최근 3년간 불법 행위 적발 이후 자격을 상실하거나 정지된 공인중개사는 다섯 명에 불과했다.

이런데도 최근 3년간 불법 행위 적발 이후 자격을 상실하거나 정지된 공인중개사는 다섯 명에 불과했다. 자치단체의 임의 조사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사권을 가진 경찰과 검찰의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낙후 도서에 활력 키우는 ‘어촌 뉴딜’ 확대를

전남 지역 소규모 어촌과 어항들은 수년 전까지만 해도 낙후와 불편의 대명사였다.

지난 2019년 ‘어촌 뉴딜 300’ 사업이 시작된 이래 전남은 15개 시군에서 98개의 지방항과 소규모 항포구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그동안 전남 어촌·어항 기반 시설 현대화에 투입된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9368억 원에 달한다.

전남 어촌에 상전벽해와도 같은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전체 사업비의 70%에 대한 국비 투자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無等鼓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땐 사랑이 보이지 않았네/ 하지만 이제 뒤돌아 보니/ 우리 젊고 서로 사랑을 했구나”

음악은 우리를 추억 속으로 데려다 준다. 좋아하는 노래인 이상은의 ‘연젠가’를 들을 때면 어느 가을날의 풍경과 지금의 연락이 끊긴 친구의 모습이 떠오른다.

“연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연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헤어진 모습 이대로”라고

몇 년 전 인가를 모았던 ‘K팝 스타’나 ‘미스터 트롯’ ‘국민 가수’ 등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을 때, 1977년 시작된 대학가요제와 강변가요제는 ‘스타 탄생’의 산실이었고 수상곡은 전 국민의 노래가 됐다.

“나 어떡해” ‘꿈의 대륙’ ‘연극이 끝나고 난 뒤’ 등 대학가요제 수상곡들은 많은 이들의 애창곡이 됐고 ‘무한계도’로 등장한 신해철의 모습도 잊을 수가 없다.

1988년 TV에 등장한 가수 이상은의 모습은 과거였다. 큰 키에 선머슴 같은 모습으로 춤을 추며 ‘답답디’를 부르던 그는 대중의 시선을 단박에 사로잡았다.

강변가요제

1988년 TV에 등장한 가수 이상은의 모습은 과거였다. 큰 키에 선머슴 같은 모습으로 춤을 추며 ‘답답디’를 부르던 그는 대중의 시선을 단박에 사로잡았다.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국장 崔宰豪, and other contact information.